탐 빌색(Tom Vilsack) 농업장관 스피치 요약(2015.2.19.)

먼저 앞서 연설한 Richard N. Haass (미외교협회 의장) 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가 쓴 수많은 책중 내가 최근에 읽은 "대외정책은 국내에서 시작 된다" (Foreign Policy Begins at Home) 이라는 책에 대해 우선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혁신적인 사회, 꾸준히 성장하는 경제, 풍부한 지하자원 및 넓은 대지 등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가 말한 이러한 강점들이 미국의 농업을 중점에 두고 하는 이야기로 들렸고 그러한 강점들을 이용해 미국농업이 더욱 생산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미국이 갖고 있는 넓고 비옥한 대지와 풍부한 수력자원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 등으로 인해 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생산해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도 있다. 이러한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농업종사자들의 노령화 (평균연령 58세)에 있다.

올해는 미국농업뿐만 아니라 미국 농무부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2014년 농업법 시행에 집중했으며 앞서 말했듯이 2014년 농업법의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는 약 50억불의 지원금을 지난 재해로 인해 가축 폐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수많은 농업종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Darily Margin Protection Program, ARC, PLC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농업종사자 여러분은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3월31일 전까지 신청하기를 권한다.

2014년 농업법이 로컬푸드 시스템 강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한 작물보험 등에 집중했다면 2015년 농업법은 시장 및 제품 확장에 집중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올해 농업무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것이다.

전체 농산물판매량의 약 30% 이상은 농산물무역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0만명 이상의 일자리 또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아시아는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5억2천5백만명 이상이 존재하며 그 수는 약 15년 안에 최대 22억 여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미국 농업종사자들에게 있어 아시아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발전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오늘 참여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미국 농업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